

『노걸대』와 『박통사』에 나타나는 ‘파’(罷)의 언해 양상 고찰

김 해 금*

[국문초록]

본고는 『노걸대』와 『박통사』에 나타나는 ‘파’(罷)의 언해 양상을 살펴 언해문에 나타나는 ‘罷’의 대응 양상이 어떠하며, 이러한 양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이본들을 비교·대조하여 밝히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노걸대』와 『박통사』에서 ‘罷’는 어휘 형식인 ‘무던하다’, ‘VP-르 만 하다’, 종결어미인 ‘-리라’, ‘-(으)마’, ‘-노라’, ‘-니라’, ‘-는다’, ‘-자’, ‘-(으)라’, ‘-고려’, ‘-쇼셔’ 등으로 언해되고 있다. 이와 같은 언어 형식을 가지고 인칭을 기준으로 ‘罷’의 문법적 의미를 시기별로 살펴본 바 16세기 초에서 17세기 후반에는 ‘무던하다’로 청자에 대한 ‘제안’과 화자의 ‘타협’(妥協)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18세기 후반에는 위의 두 의미 외에 화자의 ‘의지/결정’, 화·청자의 ‘청유’, 청자에 대한 ‘명령’, 청자에 대한 ‘약속’, ‘추측/질문’(揣測/問)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통시적인 변화를 보이는 ‘罷’의 여러 문법적 의미가 18세기 후반의 이본들에서 공시적으로 공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존현상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주제어: 罷, 罷의 언해 형식, 罷의 문법적 의미, 문법적 의미의 통시적인 변화, 언어 형식의 공존, 어휘 형식 ‘무던하다’, 주어의 인칭, 인접 범주의 교체
Chinese particle *ba*, translation aspects, grammaticalization, co-existence of expressions, *mwutenhota*, subjects, adjacent functional categories

은 동일 원문을 파악함에 있어서 주어의 인칭이라는 문법적 장치와 ‘寵’의 문법화에 대한 언해자의 인식을 복합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을 밝혔다. 한편으로 공존현상에 ‘무던하다’가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던하다’를 통해서 ‘寵’의 통시적인 변화를 포착할 수 있었다. 16세기 초에서 18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노걸대』와 『박통사』의 이본들에서 ‘寵’의 ‘여러 문법적 의미는 ‘무던하다’에 의해 거의 나타내던 것이 청자에 대한 ‘제안’, ‘타협’과 ‘한정’의 의미가 유지되고 다른 문법적 의미는 점차 다른 언어 형식으로 대체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던하다’의 사용 범위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寵’의 문법적 의미가 겪은 통시적인 변화는 ‘무던하다’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1. 서론

본고는 『노걸대』¹⁾와 『박통사』²⁾에 나타나는 ‘寵’의 언해 양상을 살펴 언해문에 나타나는 ‘寵’의 대응 양상이 어떠한지, 이러한 양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본들을 비교·대조하여 밝히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노걸대』와 『박통사』는 사역원에서 역관을 선발할 때 구어체의 교재를 외워서 물음에 대답하는 배강(背講) 과목에서 사용되었던 교재이다. 따

- 1) 본고에서 다루는 『노걸대』의 이본은 『고본노걸대』(古本老乞大), 『번역노걸대』(翻譯老乞大), 『노걸대언해』(老乞大諺解), (평양 감영판) 『노걸대언해』(老乞大諺解), 『노걸대신석언해』(老乞大新釋諺解), 『중간노걸대언해』(重刊老乞大諺解)이다. 이후 『고노』(古老), 『번노』(翻老), 『노언』(老諺), (평양 감영판) 『노언』(老諺), 『노신』(老新), 『중노언』(重老諺)으로 약칭한다. 『老諺』과 (평양판) 『老諺』은 두 이본에서 대응 양상의 차이가 보일 때 특별히 표시하는 외에 『老諺』으로 통칭하겠다. 또한 여기서는 백화원문에서 보이는 ‘寵’의 언해 양상을 고찰하는 것이므로 『몽어노걸대』와 『청어노걸대』는 대상자로서 제외한다.
- 2) 본고에서 다루는 『박통사』의 여러 이본은 『번역박통사』(翻譯朴通事), 『박통사언해』(朴通事諺解), 『박통사신석언해』(朴通事新釋諺解)이다. 이후 『번박』(翻朴), 『박언』(朴諺), 『박신』(朴新)으로 약칭한다.

라서 『노걸대』와 『박통사』에 반영된 언어 사실은 당시 사역원 역관들의 언어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노걸대』와 『박통사』에 나타나는 어기사(語氣詞)³⁾ 중에서도 근대중국어 시기에 새로 출현한 어기사 ‘罷’의 언해 양상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罷’에 대한 기존 논의 중에서 근대중국어에 관련된 논의로는 태전진부(太田辰夫),⁴⁾ 손석신(孫錫信),⁵⁾ 풍춘전(馮春田),⁶⁾ 이운선,⁷⁾ 탁연(翟燕)⁸⁾ 등이 있다. 이들 연구를 종합하면, 어기사로 쓰이는 ‘罷’는 원대(元代)에 새로이 나타났으며, 화자의 ‘의지/결정’, 청자에 대한 ‘명령·간구(懇求)·재촉·상의·제안·요구’, ‘타협’, 그리고 ‘휴지’ 등의 의미가 포착된다. ‘罷’의 문법화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가 동사 ‘罷’의 ‘파휴(罷休), ‘결속(結束), ‘완료(完了)의 의미에서 출발하여 상술한 기능으로 발전한 것

3) 어기사(語氣詞)는 중국어학의 용어로서, 그 정의를 간략히 제시하면 어기(語氣)는 말하는 이의 정서와 어조(語調)를 이르며, 語氣詞는 단독으로 또는 語調 및 기타 단어(詞語)와 더불어 각종의 다른 어기를 나타낸다고 정의할 수 있다(이운선(2007), 「구분 노걸대 어기사의 용법과 발전」,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21). 한국어에서 이에 대응하는 형식으로는 문장 종결어미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다루게 될 ‘罷’는 종결어미뿐만 아니라 어휘 형식으로도 언해되므로 ‘어기사’라는 용어를 이용하였다. 이를테면, 어휘 형식 ‘무던하다’이다. 다만 본고는 어기사 전반이 아니라 ‘罷’에 한정하여 다루므로, 어기사 대신 가능한 한 ‘罷’를 써서 논의를 진행하겠다. 또한 어기사의 ‘어기를 나타내’는 기능은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바뀌어서 표현한다. 이는 어기사가 중국어학 특유의 용어이어서 독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점과, ‘어기’라는 용어가 한국어학의 형태론에서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4) 太田辰夫(1981), 『中國語歷史文法』, 日本 京都: 朋友書店, pp. 367-369.
 5) 孫錫信(1999), 『近代漢語語氣詞』, 中國 北京: 語文出版社, pp. 134-137.
 6) 馮春田(2000), 『近代漢語語法研究』, 中國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pp. 515-519.
 7) 이운선(2007), 「구분 노걸대 어기사의 용법과 발전」,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39-41.
 8) 翟燕(2013), 「語氣詞“罷”的語法化及相關問題」, 中國 哈爾濱: 『學術交流』 10, pp. 126-130.

으로 보고 있다. 본고는 여기서 ‘罷’의 기능에 대한 선행 연구를 발판으로, 『노걸대』와 『박통사』에서 ‘罷’의 문법적 의미가 어떻게 언해되고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罷’의 문법적 의미가 다르면 언해 양상 또한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罷’의 문법적 의미가 동일할 때에도 다르게 언해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다음은 그 예⁹⁾이다.

- (1) 동일한 기능의 ‘罷’의 언해 양상이 달라지는 예¹⁰⁾
 - a. 共通一百兩, 成了罷. 모도니 一百 兩이로소니 홍정 무차도 므던하¹¹⁾
 - b. 共一百兩, 成了罷. 대되 一百 냥이니 홍정호미 므던하
 - c. 通共一百七十六兩, 成就了這交易罷. 대되 일씩 닐흔 냥이라 이 홍정을 이로자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古老』 이후로 『노걸대』와 『박통사』의 백화원문에서 ‘罷’의 언해 양상을 살피고 ‘罷’가 새로이 나타나는 것이 언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봄과 ‘罷’의 언해 형식의 분포를 시기별로 보여준다. 3장에서는 여러 이본들에서 시기별로 ‘罷’의 문법적 의미를 어떻게 언해하고 있는지 살피고 평가구문을 중심으로 ‘罷’의 여러 언해 형식이 반영하는 문법적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노걸대』와 『박통사』가 회화자료인 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주어의 인칭을 중시하여 문법적 의미를

9) 본고에서는 예문의 출처를 각 번호 아래 a, b, c, d 순(順)으로 제시하겠다. 단, 한 문단으로 제시한 예문은 하나의 각주 번호로써 해당하는 예문 번호의 출처를 제시하겠다.

10) 『鬪老』 下 12a, 『老諺』 下 11a, 『重老諺』 下 12a.

11) 예문 (1)에 ‘罷’의 언해 형식으로 ‘-아도 므던하’, ‘-호미 므던하’ 등이 보이는데 논의의 편의상 『노걸대』와 『박통사』에서 높은 실현 빈도를 보이는 ‘무던하’로 통일하여 지칭하겠다. 다른 예문들에서 보이는 ‘-오되 무던하’, ‘-코이 무던하’ 등도 마찬가지로 ‘무던하’로 통일하겠다.

파악할 것이다. 아울러 같은 백화원문에 대해 언해문에서 다르게 언해되는 현상이 인접하는 의미범주의 교체인지 아니면 백화원문의 성격에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다. 4장에서 ‘罷’의 언해 형식과 그 문법적 의미 사이의 관계를 요약하여 설명하고 이를 결론으로 삼는다.

2. 『노걸대』와 『박통사』에서 나타나는 ‘罷’의 언해 양상

『노걸대』와 『박통사』의 여러 이본들의 백화원문을 보면, 여기서 ‘罷’가 처음부터 활발하게 쓰인 것은 아니다. ‘罷’가 『노걸대』의 여러 이본들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일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초기의 이본에서는 ‘罷’ 없이 문맥에서 파악되어야 하거나, 혹은 다른 어기사인 ‘來(來)나 ‘착(着)¹²⁾으로 표현되던 의미가, 『老新』에서부터 ‘罷’로 표현되기 시작하는 것이 관찰된다. 『박통사』의 경우에도 『朴新』에서 많이 확인된다.

우선, 문맥에서 파악되던 의미가 ‘罷’로 표현된 경우를 보기로 하자. 이는 다시 대응하는 언해의 양상이 바뀌지 않고 유지되는 경우와 바뀌는 경우로 나뉜다.¹³⁾

(2) ‘罷’가 새로이 출현했지만 언해 양상이 바뀌지 않은 경우

a. 既是好呵, 咱先檢了鈔, 寫契。

[既是好銀時, 咱先看了銀子, 寫契。]¹⁴⁾

12) ‘着’은 『翻老』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는 『古老』에서 쓰이던 ‘者’를 대체하여 사용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古老』의 예문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者’를 제시할 것이다.

13) (2) 『翻老』 下 14ab, 『老諺』 下 13a, 『重老諺』 下 14a.

(3) 『古老』 12a, 『翻老』 上 41b, 『老諺』 上 37ab, 『老新』 1:52a, 『重老諺』 上 37b.

14) 이본이 다르나 같은 백화원문에 대해 다르게 언해한 경우, 예문 (2)에서처럼 백화원문을 한번만 제시하고 대응되는 언해문을 제시한다.

- b. 하마 도흔 은이라 흐거니 우리 몬져 은 보고 글월 쓰져
- c. 임의 도흔 銀이라 흐면 우리 몬져 은을 보고 글월 쓰자
- d. 既是好銀子, 我先看了銀子, 寫契寵。 이미 죠흔 은이면 내 몬져 은을 보고 글월 쓰자

(3) '寵'가 새로이 출현하면서 언해 양상이 바뀐 경우

- a. 客人每休恠, 胡喫。
[客人們休恠, 胡亂喫些。]
- b. 나그내네 허믈 마오 간대로 먹그라
- c. 客人們休恠, 胡亂喫些。 나그내들 허믈 말고 간대로 먹으라
- d. 客人們別怪, 將就吃些寵。 나그늬들 허믈 말고 두어라 흐여 저그 먹으미 무던하다
- e. 客人們別怪, 將就喫些寵。 나그늬들 허믈 말고 두어라 흐여 저기 먹으라

(2)와 (3)은 『노걸대』의 여러 이본들에서 문맥을 통해 나타나던 의미가 『老新』 이후 '寵'로 고정하여 나타난 예들이다. (2)를 보면, 1인칭 복수 포괄형(inclusive)인 '우리(咱)로써 화자가 청자에게 무엇을 하자고 제안하는 의미를 '-자'로 나타내고 있다. (3)에서 『老新』은 백화원문에서 청자인 '客人們'을 주어로 삼아 '명령'의 의미를 나타내던 것을 '무던하다'로 언해하였는데, 이 '무던하다'는 필요시 '평가구문'이라고 부르기로 한다.¹⁵⁾ 이를 제외한 다른 이본들은 '-라'에 대응하여 '명령'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박통사』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여기서 '來'가 '寵'로 교체되는 경우를 보기로 한다. 앞에서

15) 이현희는 '무던하다'는 "경(輕)의 의미와 '가(可)의 의미를 가지는데 "可"의 의미가 오늘날의 '무던하다'로 이어졌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可"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본문의 평가구문에서 다루는 '-동'과 대치되어도 좋다고 설명하고 있다(이현희 (1994), 『중세국어구문연구』, 신구문화사, p. 199, 각주 14). 본고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무던하다'가 '청유', '제안', '타협' 등 의미를 나타낼 때 필요시 평가구문으로 지칭하겠다.

본 문맥의 경우와 동일하게 언해의 양상이 유지되는 경우와 바뀌는 경우를 모두 볼 수 있다.¹⁶⁾

- (4) ‘來’가 ‘罷’으로 교체되어도 언해가 동일한 경우
- a. 宋舍, 看打春去來。宋개아 님춘 노릇흐는 양 보라 가자
 - b. 宋哥, 我同你看打春去罷。宋가 형아 내 너와 흥가지로 님춘 노릇흐는 양 보라 가자
- (5) ‘來’가 ‘罷’으로 교체되면서 언해 양상이 달라진 경우
- a. 三人同行小的苦, 咱每三箇去來。
 - b. 三人同行小的苦, 咱們三箇去來。세희 흥딕 길 너매 접니 슈고 흥느니라 우리 세희 가자
 - c. 三人同行小的苦, 咱們三箇去來。세 사름이 흥씩 네매 저므니 슈고흥느니라 우리 세희 가자
 - d. 自古道: 三人同行少的吃苦, 我們三箇人去罷。네로브터 니르되 세 사름이 흥가지로 가매 접은이 슈고흥다 흥니 우리 세 사름이 가미 무던흥다
 - e. 自古道: 三人同行少的苦, 我們三箇人去罷。네브터 니르되 세 사름이 흥가지로 가매 접은이 슈고흥다 흥니 우리 세 사름이 가자

(4)와 (5)는 『박통사』와 『노걸대』의 여러 이본들에서 어기사 ‘來’로 쓰이던 것이 ‘罷’로 교체되어 쓰이는 예들이다. (4)에서 화자인 ‘내’가 청자인 ‘宋舍’와 함께 ‘님춘 노릇흐는 양 보러’ 가자고 ‘제안’하는 장면인데 ‘자’에 대응하여 언해하고 있다.¹⁷⁾ (5)의 『老新』을 보면, 백화원문에서는 ‘來’가 ‘罷’로 바뀌었어도 여전히 화자와 청자를 포함하는 ‘客人們’에 대한 ‘제안’의

16) (4) 『朴諺』 下 45a, 『朴新』 3: 46a.

(5) 『古老』 10a, 『翻老』 上 34ab, 『老諺』 上 31a, 『老新』 1:42b, 『重老』 上 31a.

17) 이 부분은 익명의 심사위원회에서 주어를 화·청자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제시하신 부분인데 원문을 다시 확인하여 수정한 것이다. 이에 감사드린다.

의미를 표현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언해문은 ‘무던하다’를 써서 평가구문으로 문법적 의미를 바꿔서 표현하고 있다. 『노걸대』와 『박통사』에서 이와 같은 언해 양상을 보이는 예가 여러 개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者’, ‘着’이 쓰이던 것이 ‘罷’로 교체된 경우를 보기도 한다. 앞의 두 경우와 마찬가지로 언해의 양상이 유지되는 경우와 바뀌는 경우를 모두 볼 수 있다.¹⁸⁾

- (6) ‘着’이 ‘罷’로 교체되어도 언해 양상이 유지되는 경우
 [咱賭甚麼? 咱賭一箇筵席着。]
- 우리 므슴 나기호료? 우리 혼 이바디 던져
 - 우리 므서슬 나기호료? 혼 이바디를 나기호자
 - 咱們賭甚麼來? 賭一桌筵席罷。우리 므서슬 더너료? 혼 상 이바디를 더너자
- (7) ‘者’, ‘着’이 ‘罷’로 교체되면서 언해 양상이 바뀌는 경우
- 這伴當, 你過的草忒癡, 頭口每怎生喫的? 好生細細的過者。
 [這火伴, 你切的草忒癡, 頭口們怎生喫的? 好生細細的切着。]
 - 이 버다 네 사호는 답피 너므 굶다 즘승들히 엇디 머그료 가장 마느리 사홀라
 - 이 벗아 네 싸호난 답히 너모 굶다 즘싱들히 엇디 먹으리오
 마장 마늘게 싸홀라
 - 這火伴, 你[金+算+亅]的草忒癡了, 牲口怎麼吃呢? 好生細細的餹罷。이 벗아 네 싸호는 집히 너무 굶으니 즘싱이 엇지 먹으료 마장 마늘게 싸홀미 무던하다
 - 這火伴, 你[金+算+亅]的草忒癡, 牲口怎麼喫? 好生細細的餹罷。이 벗아 네 싸호는 집히 너무 굶으니 즘싱이 엇지 먹으료 마장 마늘게 싸홀미 무던하다

18) (6) 『翻朴』上 54b, 『朴諺』上 49a, 『朴新』1:53a.

(7) 『古老』6a, 『翻老』上 19b, 『老諺』上 17b, 『老新』1:23b, 『重老諺』上 17b.

(6)과 (7)은 『박통사』와 『노걸대』의 여러 이본들에서 여기서 ‘着’이 쓰이던 것이 ‘罷’로 교체되어 쓰이는 예들이다. (6)에서 화자와 청자를 나타내는 ‘咱們’에 대한 ‘제안’의 의미를 ‘자’에 대응하여 언해하고 있다. (7)에서 『老新』, 『重老諺』은 백화원문에서 표현된 청자 ‘니’(你)에 대한 ‘명령’의 의미를 ‘무던하다’로 바꿔서 언해했지만, 다른 이본들에서는 ‘라’에 대응하여 ‘명령’의 의미를 나타낸다. 『노걸대』와 『박통사』에서 이와 같은 언해 양상을 보이는 예가 여러 개 확인된다.

요컨대, (2)~(7)의 예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노걸대』와 『박통사』의 여러 이본들에서 백화원문을 언해할 때 같은 언어 형식으로 같은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일도 있고, 다른 언어 형식으로 바꿔서 언해하여 상이한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罷’의 언해 형식은 (2)~(7)에서 언급된 어휘 형식인 ‘-무던하다’, 청유형 어미 ‘-자’, 명령형 어미 ‘-(으)라’ 외에도 명령형 어미 ‘-고려’,¹⁹⁾ ‘-쇼셔’, 약속을 나타내는 어미 ‘-(으)마’, 의지를 나타내는 어미 ‘-리라’, 평서형 어미 ‘-노라’, ‘-니라’, 의문형 어미 ‘-나·나다’, 어휘 형식 VP-르 만 하다 등 다양한 언어 형식을 이용하여 언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언해 형식을 이본들의 간행 시간에 따라 출현 양상을 보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19) 이현희는 ‘-고려’는 소망을 표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세국어 단계에서 ‘-고려’와, ‘-거라’ 내지 ‘-가라’는 분명히 공손법 등급상 차이를 보이는데 ‘-고려’는 상대(청자)를 높이는 데 사용되는 일종의 명령법 어미로서 상대에게 권유를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고 하면서 ‘-라’ 앞에서의 ‘-고-’의 상대가 어떤 행위를 하기를 바라는 소망 표현에 쓰인다고 지적하고 있다(이현희(1995), 『“-아저”와 “-良結”』, 『한일어학논총』, 국학자료원 p. 423). 장윤희는 ‘-고려’는 통시적으로 ‘-고려’를 거쳐 현대국어의 명령형 ‘-구려’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고려’의 예가 15세기에 아주 드물게 보인다고 언급하고 있다(장윤희(2002), 『중세국어 종결어미 연구』, 태학사, p. 245).

[표 1]

언해 형식 \ 이본 및 시기	16세기 초		17세기 후반		18세기 후반		
	『飜老』	『飜朴』	『老諺』	『朴諺』	『老新』	『朴新』	『重老諺』
무던하다	4	0	4	1	15	14	3
-자					6	27	38
-라					5	15	34
-쇼서						1	
-고려						1	3
-노라						1	
-니라						1	
-리라						4	1
-(으)마						1	
-는다						1	
VP-르 만 하다						1	
합계	4	0	4	1	26	67	79

[표 1]에서 보면 17세기 후반을 경계로 하여 ‘罷’의 출현 빈도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6세기 초에서 17세기 후반의 이본들인 『飜老』, 『飜朴』, 『老諺』, 『朴諺』에서 비록 ‘罷’가 적게 사용되지만 모두 ‘무던하다’로 언해되고 있다. 18세기 후반의 이본들인 『老新』, 『朴新』, 『重老諺』에서는 ‘무던하다’,²⁰⁾ 청유형 어미 ‘-자’나 명령형 어미 ‘-라’로 언해된 비중이 많이 늘어났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노걸대』와 『박통사』의 여러 이본들에 중국 원(元) 시기에 새로이 출현된 여기서의 ‘罷’ 사용, 여기서 ‘罷’로의 교체, 여기서 ‘罷’의 사용의 증가 등 백화문에서 ‘罷’가 겪은 언어 변화가 고스란히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보와 온 ‘罷’의 언해 형식인 ‘무던하다’, 평서형 어미, 청유형 어미, 명령형 어미, 의문형 어미 등은 『朴新』에서 모두 확인되는데

20) 『重老諺』에서는 ‘무던하다’로 언해된 비중이 높아졌다고 말할 수 없지만 『노걸대』, 『박통사』와 마찬가지로 18세기 한학서 자료인 『오륜전비언해』(1721)에서는 ‘罷’를 ‘무던하다’로 고정하여 언해하는 모습이 포착됨으로 18세기에 ‘罷’를 ‘무던하다’로 언해된 비중이 많이 늘어났음을 보여 주는 좋은 방증 자료가 된다.

이 중에는 다른 이본에서 적게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평서형 어미, 의문형 어미도 포함된다. 특기할 것은 ‘VP-르 만 ㄴ디 못ㅎ다’ 형식이 보인다는 것이다.²¹⁾ 『重老諺』은 『朴新』에 이어 두 번째로 다양한 언해 형식을 보이는데 청유의 ‘-자’와 명령의 ‘-라’가 압도적으로 많이 확인되지만 ‘무던ㅎ다’의 쓰임이 『老新』, 『朴新』보다 현저하게 적다.

이어서 장을 달리하여 여러 이본들을 시기별로 ‘罷’의 언해 형식이 반영하는 문법적 의미를 살펴보면, 16세기 초부터 18세기 후반까지 줄곧 쓰인 형식인 ‘무던ㅎ다’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

3. 시기별로 ‘罷’의 언해 형식이 반영하는 문법적 의미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罷’의 문법화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가 동사 ‘罷’의 ‘파휴(罷休), ‘결속(結束), ‘완료(完了)의 의미에서 출발하여 화자의 ‘의지/결정’, 청자에 대한 ‘명령·간구(懇求)·재촉·상의·제안·요구’, 화자의 ‘타협’, 그리고 ‘휴지’ 등 의미로 발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본고는 여기서 ‘罷’의 기능에 대한 선행 연구를 발판으로, 『노걸대』와 『박통사』에서 ‘罷’의 문법적 의미가 어떻게 언해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²²⁾²³⁾ 따라서 이 장에서는 여러 이본을 시기

21) 이현희가 ‘X만 ㅎ-’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15세기 문헌에서 보이는 ‘NP만 ㅎ-’ 구성이 ‘NP만 ㄴㅎ-(不如) 구성과 의미상 상통하는데 ‘비교·비유적인 내용’을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다(이현희(2014), 『“X만 하다” 구성의 문법사』, 『한국언어학회 가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 5). 16세기 문헌에서부터 ‘VP-르 만 ㅎ-’ 구성은 ‘한정’의 의미와 ‘정도’를 모두 가지는데 ‘정도’의 ‘VP-르 만 ㅎ-’ 구성의 세력이 커지면서 중의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의 ‘VP-르 만 ㅎ-’ 구성을 ‘VP-르 만 ㅎ-’ 구성으로 변모하여 나타나기도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이현희(2014), p. 10). 본고의 ‘VP-르 만 ㄴ디 못ㅎ다(不如VP罷) 구성에서 백화원문의 ‘不如’에 해당하는 부분을 빼고 난 후에 보이는 ‘VP-르 만 ㅎ다’ 구성은 근대한국어 시기에서도 여전히 파악되는 ‘한정’의 의미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논의는 뒤로 미룬다.

별로 나누어서 ‘罷’의 언해 형식이 반영하는 문법적 의미를 파악하되 인칭을 기준으로 ‘罷’의 문법적 의미를 살펴보겠다.

3.1. 16세기 초반에서 17세기 후반의 ‘罷’의 언해 형식 및 그 문법적 의미

이 절에서는 16세기 초와 17세기 후반의 이본들인 『翻老』, 『翻朴』, 『老諺』, 『朴諺』에서 확인되는 언해 형식이 ‘무던하다’로만 실현된다. 또한 발견되는 용례도 적을뿐더러 용례가 겹쳐서 같이 묶어서 다룰 것이다.

3.1.1. ‘무던하다’가 반영하는 ‘罷’의 문법적 의미

3.1.1에서는 ‘무던하다’를 통해 ‘罷’의 두 가지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는 화자가 청자에 대한 ‘제안’의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화자의 ‘타협’(妥協)의 의미이다. 나타내는 의미별로 구체적인 예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²⁴⁾

(8) 화자가 청자에 대한 ‘제안’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你兩家休只管叫喚，買的添些箇，賣的減了些箇，再添五兩，共一百零五兩，成交了罷。天平地平。]

- a. 다시 닷 량만 더으면 대되 一百 兩이오 ㅍ니 닷 량이로소니 홍정 므차도 므던 호도 소니 하느리 편호며 싸히 편호 듯호도다
- b. 다시 닷 냥만 더하면 대되 一百이오 ㅍ니 닷 냥이니 홍정 못 츄이 므던 호니 天平地平이로다

22) 중국어 ‘罷’에 대한 다양한 언해 양상이 의미하는 바를 면밀하게 다룰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 주신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23) 본고에서 다루는 자료는 단순한 이본이라기보다 시간의 변화에 따른 것이므로 통시적인 측면을 수정·보완할 것을 지적인 의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24) (8) 『翻老』 下 13ab, 『老諺』 下 12a. (9) 『翻老』 下 13b-14a.

(9) 화자의 ‘타협’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罷, 罷。咱們只依牙家の言語成了罷。두워 두워 우리 그저 즈르미 말소들 드러 므초되 무던 하다

(8)은 화자인 ‘내’가 청자인 ‘你兩家’에 대해서 ‘모두 105냥이니 흥정 마쳐도 괜찮다’고 제안하는 장면이다. ‘제안’의 의미를 나타내는 용례가 『鬪老』, 『老諺』에서 각각 세 개 확인되고, 『朴諺』에서 한 예가 확인된다. (9)의 경우는 ‘값을 흥정할 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이어서 ‘청자’에게 흥정을 마치자는 ‘타협’의 의미를 나타낸다. 여기서는 한 예가 확인된다.

이상으로 ‘무던 하다’로 반영된 17세기 후반의 ‘罷’의 문법적 의미가 16세기 초의 문헌에서 보이는 문법적 의미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²⁵⁾

3.2. 18세기 후반의 ‘罷’의 언해 형식 및 그 문법적 의미

이 절에서는 18세기 후반의 이본들인 『老新』, 『朴新』, 『重老諺』에서 ‘罷’의 언해 형식이 반영하는 문법적 의미를 살펴보겠다. 이 시기에는 ‘무던 하다’ 뿐만 아니라 ‘-자’, ‘-라’, ‘-고려’, ‘-쇼셔’, ‘-(으)마’, ‘-리라’, ‘-노라’, ‘-니라’, ‘-는다’, 어휘 형식 ‘VP-르 만 하다’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이들이 쓰이는 문맥에서 ‘罷’의 문법적 의미를 자세하게 살펴겠다.

3.2.1. ‘무던 하다’가 반영하는 ‘罷’의 문법적 의미

3.2.1에서 확인되는 ‘罷’의 문법적 의미로 이전 시기에 보이는 화자의 청자에 대한 ‘제안’의 의미와 화자의 ‘타협’의 의미 외에 화자의 ‘의지/결

25) 翟燕에 의하면 17세기에서 18세기 초에 간행된 백화원문 자료에서 ‘罷’의 다양한 문법적 의미가 확인된다(翟燕(2013), p. 128). 이처럼 다양한 문법적 의미가 『노걸대』와 『박통사』의 18세기 이본들에서 부분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상세한 논의는 뒤로 미룬다.

정', 화자가 청자에게 함께 할 것을 제안하는 '청유', '한정' 등 의미가 새로이 확인된다. 나타내는 의미별로 구체적인 예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0) 화자가 청자에 대한 '제안'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²⁶⁾

- a. 你們不用糴米。我這裏飯一定煮熟了，客人們要吃，就吃些去罷。
너희 쌀을 밧고지 말라 우리 여기 밥이 一定 닉어실 거시니
나그너들 먹으려 흥거든 즉시 저기 먹고 가미 무던흐다
- b. 如今米都關出來了，叫四箇小車子載了出去罷。 이제 쌀들 다
타 내여다 네 저근 술위에 시러 내여 가미 무던흐다

(11) 화자의 '타협'의 의미

- a. 你既要立箇保管不倒的字兒，我便依着你的價錢做罷。 네 이의
믈허지디 아니믈 맛들 문서틀 세울 양이면 내 곳 네 갑대로
흥이 무던흐다
- b. 這馬都不中用。明日三位老爺騎坐的，要三四十分壯健馬，六
名跟役騎的，便略次些也罷了。我騎的却要十分快馬，我好趕
進京，先報去。 이 물이 다 뻘즉지 아니흐다 너일 三位 老爺
| 툐 거슨 세 필 3장 壯健 흥물을 흥고 六名 跟役이 툐 거
슨 곳 저기 버금 거슬 흥여도 무던흐거니와 내 툐 거슨 또
3장 쥘 툐를 구흐노니 내 서울을 미쳐 나아가 몬져 報흐라
가기 도흐리라
- c. 你那好炕不教我宿也罷，就這大門旁邊車房裏教我宿一夜如何？
네 제 조흔 방에 우리로 흥여 재오지 아니믈 무던흐거니와
곳 이 大門 젓 술위스 방에 우리로 흥여 흥룻 밤 재오미 엇
더흐노

(10)과 (11)은 앞선 시기의 이본들에서 확인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10)처럼 '제안의 의미로 쓰인 경우는 『老新』에서 열 개

26) (10) 『老新』 1:51ab, 『朴新』 2:17ab. (11) 『朴新』 1:12a, 『朴新』 2:17ab, 『重老諺』 上 43b.

확인되고 『朴新』에서 다섯 개 확인되며 『重老諺』에서는 하나 확인된다. (11)처럼 ‘타협’의 의미로 쓰인 경우는 『朴新』에서 일곱 개 확인되고 『重老諺』에서는 두 개 확인된다. 그리고 (11)에서 본 바와 같이 ‘무던하다’로 화자의 ‘타협’의 의미를 나타낼 때 백화원문에서 (11a)와 같이 ‘罷’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1c)의 ‘야파(也罷)²⁷⁾나 (11b)의 ‘야파료(也罷了)²⁸⁾로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문법화의 정도가 높은 ‘罷’과 함께 같은 의미로 『朴新』, 『重老諺』 등 이본들에서 공시적으로 두루 사용되고 있다.

(12) 화자의 ‘의지/결정’의 의미²⁹⁾

既如此說，便依着你的價錢。但是刀頭與裝飾樣我說與你，用心照樣做罷。定銀也給你。我們隔几日再來取罷了。이의 이리 니르면 곳 네 갑대로 호되 다만 칼날과 민들기와 꾸밀 모양을 내 너드려 니를 써시니 用心 하여 양즈대로 민들라 定흔 銀도 너를 주느니 우리 여러 날 즈음하여 다시 와 가져가미 무던하다

(13) 화자가 청자에게 함께 할 것을 제안하는 ‘청유’의 의미

[自古道：三人同行少的吃苦，我們三箇人去罷。]

- a. 네로부터 니르되 세 사람이 혼가지로 가매 점은이 슈고한다
 하니 우리 세 사람이 가미 무던하다
- b. 네부터 니르되 세 사람이 혼가지로 가매 점은이 슈고한다
 하니 우리 세 사람이 가자

(12)와 같이 ‘무던하다’로 화자의 ‘의지/결정’을 나타내는 용례는 『朴新』에서만 세 개가 확인된다. 이 문맥에서 ‘파료(罷了)³⁰⁾는 화자인 ‘우리’의

27) 太田辰夫는 ‘也罷’에는 아직 서술성 의미가 남아 있어 준어기사로 볼 수 있는데 ‘也罷’에서 ‘也’가 생략하고 나서야 ‘罷’가 어기사로 되었다고 보고 있다(太田辰夫(1981), p. 367).

28) 太田辰夫는 ‘也罷了’에서 ‘也’가 생략하고 나서야 ‘罷了’가 어기사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太田辰夫(1981), p. 370).

29) (12) 『朴新』 1:19b-20a. (13) 『老新』 1:42ab, 『重老諺』 上 31a.

결정을 청자한테 전달하고 있다. (13)은 화자가 청자에게 함께 할 것을 제안하는 ‘청유’의 의미를 평가구문으로 나타내는 경우인데 『老新』에서만 세 개 확인된다. 이는 주어가 1인칭 복수 포괄형으로도 쓰이는 ‘우리’(我們)를 쓰고 있으므로 ‘청유’의 의미로 파악된다. 『老新』에서처럼 평가구문으로 나타내던 문맥적 의미는 『重老諺』에 와서는 ‘-자’로 바뀌어 나타나고 있다. 『朴新』에서는 ‘-자’로만 ‘청유’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평가구문으로 ‘청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용례가 확인되지만 극히 드물게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14) ‘한정’의 의미³¹⁾

- a. 這草, 料, 麵都是你家裏賣出來的, 減少些錢如何? 罷, 罷, 只給四百五十錢罷. 이 집과 콩과 낱을 다 이 네 집의 와 산 거시니 네 적이 더롭이 엇더호노 두어 두어 네 그저 四百五十 納 돈을 주미 무던하다
- b. 那箇容易, 你放心, 我自然做了送你. 就算是與你送行罷了. 그늘 쉬오니 네 放心하라 내 自然 된드라 너를 주어 이의서 네게 送行호는 양으로 호미 무던하다
- c. 我怎麼不識銀子, 爲甚麼教別人看? 換錢不折本就罷, 你自另換五分銀子與我便是, 不用多說. 네 엇지 은을 아지 못호여 므슴하라 다른 사름 호여 뵈리오 돈을 밧고아 밧지지 아니호면 곳 무던하다

(14)의 예문들은 ‘무던하다’로 ‘한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老新』과 『重老諺』에서 각각 하나 확인되고 『朴新』에서는 네 개가 확인된다. ‘罷’가 사용된 문맥을 살펴보면 (14a)의 오직의 ‘지’(只)나 (14b, 14c)의 ‘곳’이

30) 冯春田은 ‘罷了’를 ‘罷’의 복합형식으로 양자의 의미가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冯春田(2000), p. 519).

31) 『老新』 1:29a, 『朴新』 1:46b, 『重老諺』 上 59a.

라는 의미의 ‘취(就)와 공기하면서 ‘한정’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보이는 ‘한정’의 의미와 뒤에서 다루게 될 ‘VP-르 만 ㄹ디 못하다’ 구성으로 반영하는 ‘한정’의 의미는 모두 18세기 후반의 이본인 『朴新』에서 확인된다.

‘무던하다’로 언해된 형식은 ‘罷’ 외에 ‘也罷’, ‘罷了’, ‘也罷了’도 포함된다. ‘무던하다’로 화자의 상황에 대한 ‘타협’의 의미를 표현할 때 ‘罷’, ‘也罷’, ‘也罷了’ 등이 사용되었고, 현대어의 ‘그만이다’에 해당하는 의미를 나타낼 때 ‘罷’, ‘罷了’ 등이 사용되었다. 이처럼 ‘타협’이나 ‘한정’의 의미를 『노걸대』와 『박통사』의 백화원문에서는 ‘罷’보다 ‘也罷’, ‘罷了’, ‘也罷了’로 주로 나타내고 있지만 언해 형식은 모두 ‘무던하다’로 표현하고 있어 언해문만으로 ‘무던하다’의 의미를 판단할 때 주의를 요한다.

3.2.2. 청유형 어미가 반영하는 ‘罷’의 문법적 의미

3.2.2에서 확인되는 ‘罷’의 문법적 의미로 이전 시기에 보이는 화자의 청자에 대한 ‘제안’의 의미와 화자의 ‘타협’의 의미 이외에 청자에 대한 화자의 ‘의지/결정’의 의미가 파악될뿐더러 화자가 청자에게 함께 할 것을 제안하는 ‘청유’의 의미가 확인된다. 이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청유’의 의미로 가장 많이 쓰인다. 나타내는 의미별로 구체적인 예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5) 청자에 대한 화자의 ‘의지/결정’의 의미³²⁾

- a. 你說甚麼大話！我饒你四子罷。³³⁾ 네 모습 큰 말 니르는다
내 너를 네흘 접자
- b. 這奶娘好不精細，這孩子眼脂流下來也不擦，我替他擦淨了罷。

32) 『朴新』 1:26b, 『朴新』 2:53a, 『朴新』 2:57a, 『朴新』 3: 8a.

33) (15a)의 의미를 太田辰夫는 ‘재량(裁量)의 의미로 파악하고 단지 문맥에 의해(주어가 1인칭이나 2인칭)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太田辰夫(1981), p. 367). 본고는 ‘의지’로 보고 그 이유를 뒤에서 설명하겠다.

이 젓어미 2장 精細치 못하다 이 아히 눈썹이 흘러 느리되
 뺏기지 아니하니 내 더를 2르차 뺏겨 조히 2자

c. 這麼拿我的雨衣雨靴來, 與你換穿了去罷。이러면 내 유삼과
 2흔뵐을 가져와 너를 주어 2트고와 2뵐고 가게 2자

d. 吡小廝們, 且熬些芽茶來我吃罷。아히놈들로 2여 아직 저기
 芽茶를 달혀 오게 2라 내 2자

(15)와 같이 청유문으로 화자의 '의지/결정'을 나타내는 용례로 『朴新』에서만 네 개가 확인되는데 주어를 모두 1인칭으로 실현하고 있다. (15a)의 앞에 오는 문장인 '饒你四子好下哩/네를 네흘 접어야 마치 두기 도흐리라'에 대한 화자의 '의지/결정'을 반영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다. (15b)에서 (15d)까지 모두 화자인 '나'의 행동을 표현하고자 하므로 '명령'으로 파악하기에는 '청자'의 행동이 아니라서 애매하다. 또한 이 네 문장들은 모두 '-겠다'로 바꾸어서 표현해도 어색하지 않다. 따라서 이 용례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청유문의 '청유'와 성격이 다른 것이므로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지만 현시점에서는 청유형 어미를 빌려 화자의 '의지/결정'을 반영한 용례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朴新』에서 '-자'가 많이 쓰이므로 '-자'로 평가구문을 대체하려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朴新』에서 화자의 '의지'를 반영할 경우 '-자'의 용례가 '무던하'보다 하나 더 확인되기 때문이다.

(16) 화자의 '타협'의 의미³⁴⁾

a. 你來, 你這暗花緞子要多少一疋? 講定了一疋買你的。這一疋暗花緞是兩件袍料, 實價十二兩。這般說, 便都依了你的要價罷。

이바 네 이 스된 문 비단을 언머에 2 필을 2려 2노 닐러
 2고 2 번에 네 거슬 사자 2 필 스된 문 비단은 이 두
 2 큰 옷 2음이니 실 갑시 열두 냥이라 이리 니르면 곳 다 너

34) 『朴新』 2: 8b-9a, 『重老諺』 下 1b.

달라는 갑대로 하자

- b. 他既往羊市角頭去, 路又不遠, 我只在這裏等他罷。제 이의
 羊저제 모롱이를 향하여 가시면 길히 또 머지 아니하니 내
 그제 예 이서 저를 기둘리자

(16)과 같이 ‘-자로 화자의 ‘타협’의 의미를 나타내는 용례로 『朴新』에서 두 개 확인되고 『重老諺』에서 세 개 확인된다. 두 문장을 보면 ‘罷’의 앞에 ‘곧’의 의미를 나타내는 ‘편(便)이나 ‘오직’의 의미를 가지는 ‘只’가 온다. 이 또한 앞서 살펴 본 (14)에서처럼 ‘한정’의 의미로 파악할 수 있지만 (16a)의 경우는 주인이 제시한 가격을 따르겠다는 화자 자신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므로 ‘어쩔 수 없이’,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을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문법적 의미로 파악된다. (16b)는 상대방이 간 곳이 멀지 않으므로 짧은 시간 내에 돌아올 수 있다는 상황을 가정하여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했으므로 이 또한 ‘타협’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17) ‘제안’의 의미³⁵⁾

據我說合, 再添五兩, 共一百八十一兩, 成交罷。내 니르는 대로
 또 닷 냥을 더할 꺼시니 대되 일빅 여든 혼 냥이니 홍정하자

(18) ‘청유’의 의미

- a. [這麼着, 咱們一同去罷。]
 이르면 우리 혼가지로 가자
 이르면 우리 혼가지로 가자
- b. 咱們賭甚麼來? 賭一桌筵席罷。우리 므서슬 더너료? 혼 상
 이바지를 더너자

(17)과 같이 ‘-자로 상대방에게 ‘제안’의 의미를 나타내는 용례는 『重老諺』에서만 두 개 확인된다. 화자인 ‘내’가 장사하는 쌍방에게 ‘홍정을 마치라고

35) (17) 『重老諺』 下 13a. (18) 『老新』 1:9a, 『重老諺』 上7a, 『朴新』 1: 53a.

제안하고 있는 장면이다. (18)과 같이 '-자'로 '청유'를 의미하는 용례는 『老新』에서 여섯 개 확인되고, 『朴新』에서 21개 확인되며 『重老諺』에서는 33개 확인되는 바 이들 문장의 주어는 화자·청자로 되어 있으며 현대한국어의 청유형 어미 '-자'와 인식을 같이 한다.

3.2.3. 명령형 어미가 반영하는 '罷'의 문법적 의미

3.2.3에서 확인되는 '罷'의 문법적 의미로 '명령'의 의미가 파악되는데 앞서 (3c)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명령형 어미 '-라'에 고정시킨 경우가 제일 많다. 『老新』에서 다섯 개 확인되고, 『朴新』에서 15개 확인되며 『重老諺』에서 34개 확인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라'를 생략하고 '-고려', '-쇼셔'에 관련된 예문만 제시하겠다.³⁶⁾

(19) '罷'가 '-고려'로 언해되는 경우

共該一十八兩。都給好銀子罷。대되 히오니 열여덟 냥이니 다
조흔 은을 주고려

(20) '罷'가 '-쇼셔'로 언해되는 경우

相公饒了他罷。自古道：“大人不見小人過。”相公은 더를 샤
히쇼셔 네부터 니르되 大人은 小人的 허물을 보지 아니한다
히니라

(19)와 (20)은 명령형 어미로 나타나는데 (19)에서 보이는 '-고려'는 동사 '주다'에서만 보이는데³⁷⁾ 『朴新』에서 하나 확인되고 『重老諺』에서 세 개 확인된다. '-고려'는 '-라'로 표시되는 명령문보다 '소망'의 의미가

36) (19) 『重老諺』 下 59b. (20) 『朴新』 2: 13b.

37) 이영경은 '-고려'는 주로 '주다' 동사에 많이 통합되는데 특히, '…히여 주고려'의 구문에 많이 나타나므로 '-고려'는 공손한 명령이나 요구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어미라 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다(이영경(1992), 『17세기 국어의 종결어미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108, p. 74).

포착될 뿐더러 상대를 더 높인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여³⁸⁾ 이는 경어법을 인식하였을 것이다. (20)에서 ‘-쇼셔’는 ‘흐쇼셔’체에 속하는 명령형 어미이므로, 명령형 어미 ‘-쇼셔’의 사용은 상대 경어법의 등급과 관련된 인식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3.2.4. 평서형 어미가 반영하는 ‘罷’의 문법적 의미

3.2.4에서 확인되는 평서형 어미로 ‘-(으)마’, ‘-리라’, ‘-노라’, ‘-니라’³⁹⁾ 등이 있는데 이들은 ‘약속’, ‘의지’, ‘한정’, ‘타협’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인 예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⁴⁰⁾

(21) ‘약속’의 의미

謝姐姐。我邇來時候，多多的帶些人事與你還禮罷。多謝 흐여라
각시아 내 도라올 썬에 만히 人事를 가져 네게 還禮 흐마

(22) 화자의 ‘의지’의 의미

這麼的，就給你這好銀子買罷。이러 흐면 곳 너를 이 쥬흔 은
을 주고 사리라

(23) ‘한정’의 의미

多少不等。也有三錢的，五錢的。人家有貧富不同。隨各人送
罷咧。多少 | 굿지 아니 흐 서 돈 흐느니도 잇고 닷 돈 흐느
니도 이시니 人家 貧富 | 굿지 아니 호미 이셔 各人的 보내는
대로 흐느니라

(24) ‘타협’의 의미

38) 선행연구인 고영근(1987), 김영옥(1989), 장윤희(2002)의 견해를 받아들인다.
39) 장윤희는 ‘-니라’는 구체적인 상대를 청자로 하거나 적어도 의식의 전면에 청자를 내세운 문장에서 사용되던 통보성, 실용성이 강한 어미로서, 화자가 청자를 고려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표시된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고에 나타나는 ‘-니라’는 대화문에서 주어가 화자인 경우에 확인되므로 청자를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罷’를 언해한 문장에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한정’의 의미가 파악된다(장윤희(2002), p. 169).

40) (21) 『朴新』 1:47a. (22) 『重老諺』 下 57b. (23) 『朴新』 1:47b. (24) 『朴新』 2: 43b-44a.

既如此, 却少賣了五錢一疋。只圖箇下次主顧罷。 이의 이러면
 또 닷 돈을 혼 필에 지워 꼭니 다만 후에 단골함을 구호노라
 (21)~(24)의 예문들은 평서형 어미로 나타나는데 용례들의 주어는 화
 자이고 구체적인 문맥에서 상대방에 대한 ‘약속’의 의미(21), ‘의지’의 의
 미(22), ‘한정’의 의미(23), ‘타협’의 의미(24)가 포착된다. (23)은 ‘-나라’로
 여기서 ‘파열(罷咧)’을 언해하고 있는데 ‘罷咧’은 명나라 후기(後期)에 평
 서문에 쓰이어 ‘한정’의 의미를 나타낸다.⁴¹⁾ (24)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只’와 어울려 쓰이면서 ‘타협’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3.2.5. 의문형 어미가 반영하는 ‘罷’의 문법적 의미

(25) ‘추측/질문’(揣測/問)의 의미⁴²⁾⁴³⁾

我在平厠門外住/44既是這麼, 你該給多少脚錢一担罷? 내 平
 厠門 밖에서 사노라/이의 이러면 네 언머 삭감을 혼 짐에 주려
 호는다

(25)는 『朴新』에서 하나 확인되는데 근대중국어에서 ‘罷’가 의문문에
 쓰일 경우 ‘추측/질문’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고되었다. 여기서 ‘쌀을 평
 측문(平厠門)에 가져다주는데 드는 비용’에 관해 쌍방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인데, 쌀을 사는 이에게 가격을 얼마 줄 것인가에 대한 단순한 질문
 보다는 쌀을 파는 이가 짐작하는 대략적인 가격이 있으면서 상대방을 떠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3.2.6. ‘VP-르 만 호다’ 구성이 반영하는 ‘罷’의 문법적 의미

(26) ‘한정’의 의미⁴⁵⁾

41) 이윤선(2007), p. 72.

42) 太田辰夫(1981), pp. 367-368.

43) 『朴新』 1: 13a.

44) 예문 (25)에 쓰인 ‘/’는 대화문에서 화자가 달라짐을 표시한 것이다.

這位劉某人, 他向來面前背後, 到處破敗別人誇張自己, 又慣會諂佞, 不是箇有義氣之人, 却做不得我等的結義弟兄。不如去了他罷。 이 위 劉아되 | 란 사름이 데 본되 面前背後 ㅎ여 간 곳마다 다른 사름을 허러버리고 自己를 자랑 ㅎ고 또 諂佞 ㅎ기에 닉으니 이 義氣 잇는 사름이 아니니 또 우리 結義弟兄 이 되지 못홀 거시니 더를 업시홀 만 ㄹ디 못 ㅎ다

(26)은 근대중국어에서 주로 ‘不如 VP 罷’ 구성으로 ‘罷’의 ‘한정’⁴⁶⁾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언해문에서 ‘VP-ㄹ 만 ㄹ디 못 ㅎ다’로 언해하고 있다. 이 구성 중에서 부정 표현과 ‘如’를 나타내는 ‘ㄹ-’을 빼면 ‘VP-ㄹ ㅎ-’가 남게 되는데 이 구성이 ‘한정’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이를 포함한 구성 전체가 ‘한정’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 ‘罷’의 ‘한정’의 의미를 나타내던 어휘 형식인 ‘무던 ㅎ다’나 ‘VP-ㄹ 만 ㅎ다’는 1884년에 언해되어 나온 『홍루몽』에서는 ‘그만 두-’로 언해되고 있다.⁴⁷⁾ 이를 통하여 ‘한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罷’에 여러 언어 형식이 존재하며 그중에서 일부 언어 형식 사이에서 대체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술한 논의를 종합하여 우리는 『노걸대』와 『박통사』에서 보이는 ‘罷’의 문법화의 단계를 1~5로 설정하고 ‘罷’에 대응하는 언해 형식과 그 문법적 의미를 각 이본들에서의 분포를 보이면 다음 [표 2]와 같다.⁴⁸⁾

[표 2]를 보면 16세기 초에서 17세기 후반에는 ‘무던 ㅎ다’로 청자에 대한 ‘제안’과 화자의 ‘타협(妥協)’ 등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던 것이 18세기 후반에는 위의 두 의미와 청자에 대한 ‘명령’을 제외한 화자의 ‘의지/결정’, 화·청자의 ‘청유’, 청자에 대한 ‘약속’, ‘추측/질문(揣測/問)’의 의미도 나타낸다. 18세기 후반에 와서 ‘무던 ㅎ다’는 점차 ‘의지’, ‘청유’를 나타내는

45) 『朴新』 1: 27b.

46) 翟燕(2013), p. 128.

47) 이현희(2014), pp. 10-11.

48) 翟燕(2013), p. 128.

[표 2]

이본 '罷'의 의미		16세기 초		17세기 후반		18세기 후반		
		『翻老』	『翻朴』	『老諺』	『朴諺』	『老新』	『朴新』	『重老諺』
1	화자의 의지/결정						무던하다 -자, -리라	-리라
2	화·청자의 청유					무던하다 -자	-자	-자
	청자에 대한 제안	무던 하다		무던 하다	무던 하다	무던하다	무던하다	무던하다 -자
	청자에 대한 명령					-라	-라, -쇼서, -고려	-라, -고려
	청자에 대한 약속						-(으)마	
3	화자의 타협	무던 하다		무던 하다			무던하다 -자	무던하다
4	한정					무던하다	무던하다 -노라, -니라 VP-르 만 하다	무던하다
5	추측/질문						-는다	

의미로 쓰이지 않게 되고 '제안', '타협', '한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임으로써 결국 '무던하다'의 사용 범위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罷'는 통시적인 의미 변화를 겪었지만 그 의미들은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해 가는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18세기 후반의 언어 현상을 반영하는 공시적인 이본들에서 특히 『朴新』에서 언어 형식들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불가피하게 같은 문법적 의미를 언해문에서 다른 언어형식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를 석주언에서는 인접하는 의미 범주 교체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한어 원문의 성격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연속선상에 있는 의미 범주를 표시하는 형식들 간의 단

순한 교체 현상을 반영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다.⁴⁹⁾ 동일한 원문에 대응하는 예문을 몇 개 확인하면서 검토하겠다.⁵⁰⁾

(27) 타협과 명령 사이의 넘나들

[這草, 料, 麵都是你家裏賣出來的, 減少些錢如何? 罷, 罷, 只給四百五十錢罷。]

- a. 이 집과 콩과 글톨 다 이 네 집의 와 산 거시니 네 적이 더룸 이 엇더호뇨? / 두어 두어 네 그저 四百五十 닛 돈을 주미 무던 하다
- b. 우리 집과 콩과 글리 다 네 집의셔 프라 낸 거시니 저기 돈을 털미 엇더호뇨? 두어 두어 네 그저 四百五十 닛 돈을 주고려

(28) 제안과 청유 사이의 넘나들

[既這般說, 火伴, 你三箇人一齊都拿出來了給他。記着數目, 到北京打總再計罷。]

- a. 이피 이리 니르면 벗아 너희 세 사름이 흠씩 다 내여 저를 주고 數目을 기록호엿다가 北京에 가 대되 다시 혜미 무던 하다
- b. 이피 이리 니르면 벗아 너희 세 사름이 흠씩 다 내여 저를 주고 數目을 기록호엿다가 北京에 가 대되 다시 혜자

(29) 청유와 청유 사이의 넘나들

[咱們都去了麼, 這房子教誰看守着呢? 且留一箇看房子, 着兩箇拉馬去罷。]

- a. 우리 다 가면 이 집을 놀로 호여 보게 호리오 아직 호나홀 머무러 집을 보게 호고 둘로 호여 물을 잇그려 가미 무던 하다
- b. 우리 다 가면 이 집을 놀로 호여 보게 호리오 호나홀 머무러 집을 보게 호고 둘로 호여 물 잇그려 가자

49) 석주연(2003), 『노걸대와 박통사의 언어』, 태학사, p. 86.

50) (27) 『老新』 1:29a, 『重老諺』 上 21a. (28) 『老新』 1:29ab, 『重老諺』 上 21ab. (29) 『老新』 1: 42a, 『重老諺』 上 30a.

(27)~(29)에서는 같은 백화원문을 평가구문과 청유문, 평가구문과 명령문 사이에 넘나드는 것처럼 보여 주고 있다. (27)에서 (27a)는 상황에 대한 불만족스러움을 감수하고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화자의 '타협'의 의미를 나타내는 데 반해 (27b)는 단지 청자에 대한 '명령'의 의미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차이를 보인다. (28)에서는 '너희 세 사람(你三箇人)에 대한 파악에서 언해가 달리된 경우이다. (28a)는 청자인 '너희 세 사람'을 앞 뒤 두 문장의 주어로 상정하여 청자에 대한 화자의 '제안'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28b)에서는 '너희 세 사람'을 앞 문장의 주어로 상정하여 '꺼내다'라는 동작을 마치고 나서 '우리가 북경에 가서 계산하자'라는 식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차이를 보인 것이다. (29)의 상황도 (28)과 비슷한 경우이다. '집 지키는 사람'과 '말을 끌고 가서 물 먹이는 사람'을 '우리(咱們)라는 1인칭 복수 포괄형에서 단독으로 꺼내어 제3자로 간주하고 주어를 상정할 경우 (29a)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고, (29b)에서처럼 '우리(咱們)라는 1인칭 복수 포괄형을 주어로 상정할 경우에 청유문으로 파악이 가능하기에 (29)의 용례 또한 주어의 인칭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18세기 후반의 이본들에 나타나는 인접 의미 범주 사이의 교체 여부 현상은 주어의 인칭이라는 문법적 장치로 확인할 수 있지만 주어의 인칭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예컨대 (27)의 경우이다. 이는 백화원문의 성격을 파악하여야 할 부분인데 동일한 원문이라도 문법화에 대한 언해자의 인식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주어의 인칭의 변화와 '罷'의 문법화의 단계를 복합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및 남은 과제

본고는 근대중국어 시기, 특히 元 시기에 새로 나타난 '罷'가 『노걸대』와 『박통사』에서 어떻게 언해되고 있는지, 언해 형식을 통해 나타내는 문법적

의미가 무엇이며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살폈으며 여러 이본들 가운데서 포착되는 인접 의미 범주의 교체 현상에 대하여서도 언급하였다.

『노걸대』와 『박통사』에서 ‘罷’는 어휘 형식의 ‘무던하다’, ‘VP-르 만 하다’ 구성, 종결어미인 ‘-리라’, ‘-(으)마’, ‘-노라, -니라’, ‘-는다’, ‘-자’, ‘-(으)라’, ‘-고려’, ‘-쇼셔’, 등으로 언해되고 있다. 이들을 시기별로 인칭을 기준으로 문법적 의미를 확인한 바 16세기 초에서 17세기 후반까지 청자에 대한 ‘제안’과 화자의 ‘타협’의 두 의미만 나타내고 18세기 후반에는 위의 두 의미 외에 화자의 ‘의지/결정’, 화·청자의 ‘청유’, 청자에 대한 ‘명령’, 청자에 대한 ‘약속’, ‘추측/질문’ 등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요컨대 ‘罷’의 문법화의 여러 단계가 18세기 후반이라는 공시적인 측면에서 공존하는 모습과 언어 형식들 사이의 통시적인 변화를 포착할 수 있었다.

‘罷’의 여러 문법적 의미의 공시적인 공존현상은 동일 원문을 파악함에 있어서 주어의 인칭이라는 문법적 장치와 ‘罷’의 문법화에 대한 언해자의 인식 차이를 복합적으로 관찰할 필요성을 밝혔다. 한편으로 공존현상에 ‘무던하다’가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던하다’를 통해서 ‘罷’의 통시적인 변화를 포착할 수 있었다. 16세기 초에서 18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노걸대』와 『박통사』의 이본들에서 ‘罷’의 ‘여러 문법적 의미는 ‘무던하다’에 의해 거의 나타내던 것이 청자에 대한 ‘제안’, ‘타협’과 ‘한정’의 의미가 유지되고 다른 문법적 의미는 점차 다른 언어 형식으로 대체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던하다’의 사용 범위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본고의 의의와 남은 과제를 제시하고 논의를 마무리하겠다. ‘罷’의 여러 언해 형식 들은 ‘罷’의 문법화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무던하다’를 통하여 문법화 여러 단계의 문법적 의미를 더욱 잘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점이 이 논문의 첫 번째 의의이다. 두 번째 의의로 통시적으로 ‘한정’의 의미를 다룸에 있어서 ‘그만 두다’뿐만 아니라 ‘무던하다’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을 제시한 것이다.

왜냐하면 같은 18세기 후반의 『朴新』에서 어휘 형식으로는 ‘무던하다’에 의해 전적으로 나타내던 ‘罷’의 ‘한정’의 의미가 ‘VP-르 만 하.’으로 언해되는 용례가 포착된다는 점과 같은 의미를 19세기에 언해된 『홍루몽』에서는 ‘그만 두.’와 같은 형식에 대응한 용례가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罷’의 문법화의 여러 단계의 모습을 보여 주는 『朴新』은 ‘罷’의 연구에서 중국에서 간행된 명·청 시기 근대중국어 자료들과 동등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검증한 것이다. 아쉬운 점은 『노걸대』와 『박통사』에 보이는 ‘罷’의 언해 양상을 고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무던하다’에 대한 전면적인 접근이 부족했다. 언해문에 보이는 ‘무던하다’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는 후고를 기한다.

참고문헌

【자 료】

老乞大, 老乞大諺解, 서울대학교 奎章閣.

老乞大新釋, 重刊老乞大, 重刊老乞大諺解, 서울대학교 奎章閣.

朴通事新釋, 朴通事新釋諺解, 서울대학교 奎章閣.

朴通事諺解, 서울대학교 奎章閣.

翻譯老乞大, 朴通事, 韓國古典叢書刊行委員會.

_____, 仁荷대학교 出版部.

박재연(2003), 『老乞大』·『朴通事』原文·諺解 比較 資料, 鮮文대학교 中韓翻譯文獻研究所.

【논 저】

고영근(1987), 『표준 중세국어문법론』, 탑출판사.

김영옥(1989), 「중세국어 원칙법 ‘-니’와 둘째 설명법 어미 ‘-니라’의 설정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관악어문연구』 14.

석주연(2003), 『노걸대와 박통사의 언어』, 태학사.

이영경(1992), 「17세기 국어의 종결어미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108.

이운선(2007), 「구분 노걸대 어기사의 용법과 발전」,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현희(2014), 「‘X만 하다’ 구성의 문법사」, 『한국언어학회 가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_____(1995), 「“-아저”와 “-良結”」, 『한일어학논총』, 국학자료원.

_____(1994), 『중세국어구문연구』, 신구문화사.

장윤희(2002), 『중세국어 종결어미 연구』, 태학사.

孙锡信(1999), 『近代汉语语气词』, 北京: 语文出版社.

翟燕(2013), 「语气词“罢”的语法化及相关问题」, 哈尔滨: 『学术交流』 10.

太田辰夫(1981), 『中國語歴史文法』, 京都: 朋友書店.

冯春田(2000), 『近代汉语语法研究』, 濟南: 山东教育出版社.

180 인문논총 제72권 제3호 (2015.08.31)

원고 접수일: 2015년 6월 28일

심사 완료일: 2015년 7월 20일

게재 확정일: 2015년 7월 30일

ABSTRACT

A Study on Aspects of Korean Translation Regarding
Chinese *Ba* (罷) in *Nogoldae* and *BakTongsa*

Jin, Haijin*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translation aspects regarding the Chinese particle *ba* (罷) by comparing different editions of *Nogoldae* and *BakTongsa*. The particle *ba* was translated into either appraisal constructions such as *-atwo mu/mwutenhota*, *-hwomi mu/mwutenhota* and *VP-lman kosti mwohota*, or word-final endings such as volition marker *-lila*, promissive *-(u)ma*, declarative *-mwola*, *-nila*, interrogative *-nonta*, exhortative *-cya*, imperative *-(u)la*, *-kwolye*, *-kwola*, and *-sywosye*. By focusing on the subjects of the predicates, it can be shown that the particle *ba* had undergone a further grammaticalization, and that the translators faced the changes. From the early 16th to late 17th centuries, the particle *ba* mainly expressed a suggestion for the listener and a compromise from the speaker's point of view. In late 18th century, however, it functioned also as the speaker's volition/decision marker, exhortative, imperative, promissive, inferential, or question marker. We can see this particularly in the changes regarding appraisals. Appraisals, which vaguely expressed the several functions of *ba* in the early stages, had come to be substituted by different constructions in the later stages.

*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